

인공지능 집적단지·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첫 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지난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정책과 인사를 함께 책임지는 당청 협의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비 광주·전남 어떤 사업 반영됐나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역대급 국비 확보 성과를 내면서, 지역 미래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초석을 쌓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시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핵심 산업 탄력=시는 '문화·관광 사업' 예산으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G-Planet) 조성(5억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핀드 출자(100억원), 아시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조성(7억5000만원), 아시아 문화테마공원 조성(1억5000만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90억원) 등 113건 1504억원을 확보했다.

또 '인공지능도시 및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억9000만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원) 등 96건 4135억원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100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1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원) 등 69건 1조 839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문화전당 운영 콘텐츠 개발 590억
사회안전망·녹색도시 조성 96건
SOC 등 기반 확충 35건 7077억

■전남

바이오백신 분야 14건 415억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작
SOC 분야 28개 사업 8640억

(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0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원), 광주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원) 등 35건 7077억원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 비엔날레전시장 건립(80억원)과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원), RE 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원) 예산 등을 국회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형연구시설 구축 초석 놓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탄력=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신규 사업 중에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5억원) 확보가 주목된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

설은 총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기초과학과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산업 각 분야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이다.

지난 2019년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용역비 반영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 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바이오백신 분야에선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30억원 중 14억원 확보), 백신 기술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총사업비 450억원 중 24억원 확보) 등 13개 사업에서 4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선 여촌·어항 재생사업 시범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다. 2022년 종료되는 정부의 여촌·어항 정비사업인 여촌뉴딜 300의 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시범 사업 성격이지만, 향후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농업 분야에선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비(총사업비 480억원) 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SOC 분야에선 28개 사업에서 8640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사업(총사업비 1조 7703억원)은 1200억원을 확보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공사비(총사업비 2조 5759억원) 2617억원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남 서남부와 광주를 잇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총사업비 1조 6169억원)은 1800억원이 반영됐다.

/박진표·김영호 기자 lucky@kwangju.co.kr

‘명낙대전’ 재점화...이번엔 무료변론 논란

이재명 측 “네거티브도 넘었다”

이낙연 측 “수입 비용 일체 공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비방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지사의 이른바 '무료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31일 '무료변론'과 관련한 이전 대표 측의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재판이 거치면서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산신고내역이 공개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재판은 2018년 6월 선거 직후 시작해, 2020년 하반기에 끝났다"며 "수사 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9일 관보 게시 재산에 대비해 재판종료후인 2021년 3월 25일 관보 기준 재산액은 총액 기준 1억2975만8000원이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감안시 3억225만8000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공표를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최대한 인내했지만 이번의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이는 네거티브를 넘어선 낙선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

표이자 중대범죄로서 이낙연 후보님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전 대표 측은 이재명 캠프의 주장이 적반하장이라며 변호사 수입 비용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배재정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 캠프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시라.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 "변호사비 의혹은 전국철거민협 의회가 지난 25일 이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이낙연 캠프가 고의로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려고 뒷조사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 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그만"이라며 "진실을 몰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고 동료의원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참으로 참담하다. 역대 어느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개인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오히려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이재명 캠프의 적은 그 내부에 있다'는 세간의 얘기에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박영선과 '전문명답' 유튜브 대담

박 “민주당 후보 국민에 알릴 필요”

미 출국 앞두고 이재명 지지 관측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 <사진>



박 전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수석고문 자격으로 당분간 워싱턴DC에 머물 예정이다. 당내 경선과 거리를 뒀던 박 전 장관이 출국을 앞두고 사실상 이 지사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31일 박 전 장관이 묻고 이 지사가 답하는 형식의 '전문명답' 5부작 영상을 캠프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고편에 이어 1~5일에는 이 지사가 소년공으로서 헤쳐온 도시 빈민의 삶,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다룬 본 영상이 차례로 방송된다. 캠프는 "두 정치인의 만남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며 21세기 대전환기 새 리더십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령 민주당 후보 선대위의 지원실장과 비서실 부실장을 각각 맡은 인연이 있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설기계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GRC
(Global R&D Center)

2022년 경기도 판교 R&D 인근에
준공 예정인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술경영 컨트론타워로
5천여 명의 기술인력들과 함께
그룹의 새로운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역할 수행

현대중공업그룹이 글로벌 No.1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할 소중한 인재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홈페이지 참조 recruit.hhi.co.kr)

▲ 현대중공업지주
▲ 한국조선해양
▲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상호중공업
▲ 현대오일뱅크
▲ 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